

운영주체·인력 확보 안돼 시운전·테스트경기 준비상

광주U대회 D-113...신·증축 경기장 공사 현장 점검

광주 U대회의 신·증축 경기장들이 대부분 완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운영 주체 선정 지연, 전문 운영 인력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시험가동과 시설 운영 등의 차질이 우려된다.

더욱이 신설 경기장 중 남구에 들어서는 광주국제양궁장은 보상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공정률이 63%에 머물고 있다. 테스트 이벤트 대회(6월 2~5일)를 치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5월 초까지는 준공돼야 하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1일 광주시와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총 경기장은 70개소로, 신축은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양궁장 등 3개소다. 증축 7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존시설을 활용한다. 이 중 전남·북 10개 시·군에 19개소가 배치됐다.

광주여자대학교 내에 신축중인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체육관은 이달 말 완공을 목표로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연면적 2만7723㎡,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짓고 있으며, 체조(기계, 리듬)에 결선이 열린다. 대회 이후에는 콘서트와 박람회 등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연면적 1만923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남부대에 신축중인 남부대국제수영장은 공정률 92%로, 수영(경영, 다이빙)에 결선이 열린다. 국내 최초로 다가능수심조절장치(3m까지 수심조절 가능), 대형스테인리스 수조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됐다.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메인 경기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육상 경기장이 열리는 광주월드컵 경기장은 대회를 한눈에 관찰해야 할 대회 연출실의 바닥이 낮아 조망권이 확보 안 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애초 대회 연출실의 통유리 등을 교체하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안전 문제로 내부 바닥면임시로 높이는 등의 방안을 추진중이다.

신·증축 경기장의 운영 주체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시는 최근 신·증축 경기장 10개소의 운영주체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0일 광주국제양궁장은 시체육회에, 진월국제테니스장과 보라매축구공원은 생활체육회에 위탁하기로 결정했지만, 나머지 경기장은 여전히 운영 주체를 확정하지 못했다. 운영 주체가 없으면 시운전과 테스트 이벤트, 본 대회 운영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남부대 국제수영장의 경우는 심카

신축 3곳중 2곳 공정률 90%

보상 마찰 양궁장은 63%

본경기까지 관리비만 13억

남부대, 수영장 운영 난색

한 수준이다. 준공 후 경기 전까지 시설 운영비만 13억원 인력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부대측이 운영 자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4월 시운전 후 일시 폐쇄하고, 5월 테스트대회 후 또 폐쇄했다가 대회를 치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놓고 지역 수영계에서는 광주 수영 대표들이 영주수영장 개보수 등으로 타지역을 떠돌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비 때문에 신축 수영장에서 훈련조차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신축 경기시설을 운영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광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 시일 내 시설 전문인력을 배치해 테스트 이벤트는 물론 U대회 경기 운영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여대 캠퍼스 내에 건설되고 있는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다목적체육관. 외벽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U대회 경기장 위치도



- 1 동강대체육관(농구)
- 2 영주종합체육관(배구)
- 3 남부대국제수영장(경영 / 다이빙)
- 4 영주실내수영장(수구)
- 5 영주빛고을체육관(유도)
- 6 광주월드컵경기장(육상)
- 7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체육관(리듬체조 / 기계체조)
- 8 호남대 축구장(축구)
- 9 진월국제테니스장(테니스)
- 10 영주전천후테니스장(테니스 / 우천시)
- 11 김대중컨벤션센터(펜싱)
- 12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야구)
- 13 무등야구장(야구)
- 14 광주국제양궁장(양궁)
- 15 조선대체육관(태권도)
- 16 호남대체육관(배구)
- 17 전남대 실내체육관(핸드볼)

“U대회 남북 단일팀 막는 통일부 규탄” 광주 시민단체 성명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의 남북 단일팀 구성이 부적절하다는 통일부 측 발언과 관련해 광주평화U대회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11일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할 통일부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사단법인 우리민족, 광주시민단

체협의회 등 지역 시민단체가 연대한 준비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통일부의 발언을 강력 규탄하여 광주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등 북한 응원단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총회에서 남북단일팀을 결의했고 최근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에서도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

다”며 “그러나 당시 김종 문화부 차관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정서 운운하며 단일팀 구성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광주U대회 공식 참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모처럼 형성된 남북관계의 불바람이 우리 정부에 의해 모진 엄동설한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그리스 고전미술의 극치 ‘라오콘 군상’



(106) 고귀한 단순과 교묘한 위대

살아갈수록 우리는 무수한 말들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말 한 마디에 좌절하고 상처받기도 하지만 작은 구절 하기도 한다. 얼마 전 관람했던 영화에서도 내용보다도 주인공이 들려주던 해밍웨이의 명언이 더 인상적이었다. “타인보다 우수하다고 해서 고귀한 것은 아니다. 과거의 자신보다 우수한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고귀한 것이다.”

‘고귀함’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다. ‘그리스 미술의 발견자’로 일컬어지는 독일 미술사학자 요한 요하임 빈켈만(1717~1768)이 그리스 미술의 특징으로 규정했던 ‘고귀한 단순과 교묘

한 위대’라는 개념이다. 빈켈만은 저서 ‘그리스 미술 모방론’에서 그리스 고전 미술을 미술의 규범으로 간주하고 그 이상미의 성격을 조망했는데, 휘몰아치는 격정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예술가의 위대한 영혼을 찬탄했다. 처음 이 구절을 접했을 때, 감히 내 삶의 이상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던 기억이 난다.

빈켈만은 고대 그리스의 ‘라오콘 군상’에서 ‘고귀한 단순과 교묘한 위대’의 이상이 실현되었다고 격찬했다. ‘라오콘 군상’은 트로이전쟁 당시 그리스군의 목마를 성안에 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트로이의 신관 라오콘과 두 아들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보낸 커다란 뱀에게 습격당하는 순간을 형상화한 것이다. 극심한 고통의 순간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조각가의 솜씨가 놀랍기만 하다.

기록에 따르면, ‘라오콘 군상’은 기원전 1세기 초 로도스섬 출신의 조각가인 헬레나도로스, 아테나도로스, 폴리도로스의 합작으로 포도밭에 묻혀 있다가



‘라오콘 군상’(기원전 1세기 초)

1506년 발견되었다고 한다. 당시 발굴 현장에 있었던 미켈란젤로는 실로 ‘예술의 기적’이라 감탄하였고, 그의 예술세계는 라오콘군상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최고의 미는 고통의 상태이고, 고통은 고통과 기쁨 사이 중용의 상태”라고 했던 빈켈만 역시 후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끼쳐 그를 숭배했던 소설가 앙리 베일(1783~1842)은 빈켈만의 고향 지명인 ‘스탕달’을 필명으로 쓰기도 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영원한 사랑을 찾아서~

제16회 구례 산수유꽃축제 9일간

2015. 3. 21(토) ~ 3. 29(일)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은천관광지 일원

풍년가원제 | 봄꽃 콘서트 | 힐링가든 음악회 | 개막축하공연(출연 EXID 외)

플라워가든 음악회 | 포에버콘서트 | 보물찾기 | 산수유 러브레터

산수유 포토제닉 | 산수유나무 임대분양 | 산수유족욕체험 | 산수유차 달이기

주최 구례군 GURYE County

주관 구례산수유꽃축제

구례산수유꽃축제